

임상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수행능력 및 직무만족도

성 미 혜¹⁾ · 엄 옥 봉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환자에 대한 총체적인 돌봄과 환경의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질적인 간호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긍정적인 간호수행이 요구된다(Kim, 2006). 질적인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석, 분석, 평가, 추론, 설명, 자기조절 등의 비판적 사고능력이 필요한데, 오늘날 이러한 능력은 간호영역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대두되고 있다(Simpson & Courtney, 2002).

비판적 사고는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인지적 기술을 사용하여 목적이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기술은 평소에 습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성향이 있어야만 향상될 수 있다(Choi, 2004; Hwang, 1998). 비판적 사고는 크게 성향(disposition)과 기술(skill)로 개념화되는데, 특히 비판적 사고성향은 개인적 또는 전문적 업무에 있어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개인적인 성향이다(Facione, Facione, & Giancarlo, 1996; Yang & Jung, 2004). 간호 분야에서의 비판적 사고에 대한 견해는 비판적 사고를 문제해결이나 간호과정으로 보는 견해와 문제해결 능력 이상의 것으로 보는 견해 그리고 간호행위에 대한 비판적 반성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Hwang, 1998). Facione과 Facione(Kim, 2007)에

인용됨)은 간호 분야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문제해결 능력 이상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한 가운데, 간호에서 비판적 사고를 임상적 판단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사는 비판적 사고성향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할 때만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해가는 간호현장에 신중히 대처하고, 그들의 자율성을 유지하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Kim, 2007; Profetto-McGrath, Hesketh, Lang, & Estabrooks, 2003; Shin, Ha, & Kim, 2005).

학교교육의 주요목표가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하는 것이고, 특히 간호교육은 학교교육의 결과가 곧 바로 간호 실무에 직결되는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실제로 임상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측정하고,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수행능력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Hwang, 1998). 그러나, 지금까지 비판적 사고에 관한 국, 내외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수행 능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에서, 두 변인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Brooks & Shepherd, 1990; Hwang, 1998)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Maynard, 1996)로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수행능력 간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들은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규명을 위해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의 함양은 새로운 지식의 급증과 복잡한 인간관계와 근무조건, 간호수혜자의 질적 간호

주요어 :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수행능력, 직무만족도

1)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nursmh@inje.ac.kr)

2) 상계백병원 간호부장

투고일: 2009년 1월 15일 수정일: 2009년 2월 2일 심사완료일: 2009년 2월 25일

요구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직무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병원조직에서 간호사는 조직의 기본이며 가장 많은 구성원으로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집단으로, 이들의 직무만족은 병원조직의 성공적인 목표달성의 주요인으로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곧 환자의 만족으로 이어지게 된다(Kim, 2007). 간호사는 직무의 특성상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서비스의 도구로 삼게 되는데, 간호사가 성공적인 전문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경험과 전문지식 및 비판적 사고를 갖추어야 한다(Kim, 2007; Lee, 2001).

Kim, Kang and Lee(Kim, 2007에 인용됨)가 주장한 것처럼 1980년 이후 간호 관리의 대표적 성과변수로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간호 관리 차원에서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 내외적으로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비판적 사고와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는 Kim(2007)의 연구뿐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수행능력과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고,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간호사의 간호수행능력의 함양은 물론 이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수행능력 및 직무만족도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및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수행능력 및 직무만족도를 확인한다.
-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수행능력 및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수행능력 및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용어 정의

● 비판적 사고성향

개인적·전문적 업무에 있어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개인적인 성향(Facione et al., 1996)으로, 본 연구에서는 Facione et al.(1996)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성향도구(CCTDI,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를 Hwang(1998)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 간호수행능력

간호직무상으로 충분한 지식과 판단력, 기술,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특성 또는 상태(Hwang, 1998)로, 본 연구에서는 Schwirian(1978)이 개발한 Six Dimension Scale of Nursing Performance(6-D Scale)를 Hwang(1998)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 직무만족도

자기직무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로 직무특성이 다양하고 업무가 명확할 때 발생하는 긍정적인 심리상태(Slavitt, Stamp, Piedmont, & Hasse, 1978)로, 본 연구에서는 Slavitt 등(1978)이 개발한 직무만족측정도구를 Kim(2003)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간호사에게 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들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수행능력 및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횡단적 상관성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시 소재 500병상 규모의 I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외래와 수술실을 제외한 병동간호사 2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는 Facione et al.(1996)이 개발한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CCTDI)를

Hwang(199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비판적 사고성향을 7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는 것으로, 진실추구 8문항, 개방성 5문항, 분석 5문항, 체계성 7문항, 비판적사고 자신감 9문항, 호기심 많음 10문항, 성숙 6문항 등 총 50문항의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6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로 측정한 비판적 사고성향의 평균점수는 3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점수가 170점 이하이면 비판적 사고성향이 약한 것을 의미하고, 210점 이상이면 비판적 사고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고, Hwang(199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였다.

● 간호수행능력

간호수행능력 측정도구는 Schwirian(1978)이 개발한 Six Dimension Scale of Nursing Performance(6-D Scale)을 Hwang(1998)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6가지의 하부영역으로, 지도력 5문항, 위기관호 7문항, 교육/협력 11문항, 계획/평가 7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12문항, 전문적 발전 10문항 등 총 52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매우 잘 못한다’ 1점에서 ‘매우 잘 한다’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6개의 영역별로 Cronbach's $\alpha = .84 \sim .97$ 이었으며, Hwang(199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였다.

●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측정도구는 Slavitt et al.(1978)이 개발한 도구를 Kim(2003)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7개의 하부영역으로, 전문적 위치 4문항, 간호사-의사관계 3문항, 행정 6문항, 자율성 6문항, 업무요구 3문항, 상호작용 7문항, 보수 3문항 등 총 32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동의 한다’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역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화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으며, Kim(200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0$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9$ 였다.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8년 5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였다. 먼저 연구대상병원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간호부 내 교육위원회로부터 대상 설문지의 내용에 대해 심사를 받은 후 연구조사에의 승인을 받았다. 설문조사는 연구보조원 1인이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전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으며,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주었다. 총 2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00% 회수하였으나 응답이 불완전한 9부를 제외한 22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수행능력 및 직무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수행능력 및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수행능력 및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Table 1>, 대상자 중 프리셉터 역할을 하는 경우는 16.3%였으며, 일반간호사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는 83.7%였다. 연령은 평균 27.8세로 24-26세가 32.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세 이상이 25.3%, 27-29세가 23.5% 순이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71.0%로 기혼 29.0%보다 많았으며, 종교는 없음이 4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기독교 34.4%, 천주교 11.3% 순이었다. 학력은 3년제 졸업이 60.2%로 가장 많았으며, 총 임상경력은 평균 65.0개월로 1-5년 미만이 44.8%, 5-10년 미만이 24.4%이었다. 현 직위는 일반 간호사가 88.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근무부서는 외과계 병동이 48.9%, 내과계 병동이 31.7%, 산, 소아과 병동이 12.2%, 기타가 7.2%였다.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수행능력 및 직무만족도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수행능력 및 직무만족도를 보면<Table 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총 50문항의 6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에서 총 300점 만점에 평균 181.68점이었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21)

Variables	Categories	n	%
Role	Preceptor	36	16.3
	General nurse	185	83.7
Age(yr)	≤23	42	19.0
	24-26	71	32.2
	27-29	52	23.5
	≥30	56	25.3
Marital status	Married	64	29.0
	Unmarried	157	71.0
Religion	Protestant	76	34.4
	Roman catholic	25	11.3
	Buddhist	19	8.6
	None	101	45.7
Education level	3 yr nursing college	133	60.2
	4 yr nursing college	62	28.0
	In RNBSN	19	8.6
	In MSN	7	3.2
Career length (yr)	<1	37	16.7
	<1-5	99	44.8
	<5-10	54	24.4
	≥10	31	14.1
Current position	Staff nurse	196	88.7
	Charge nurse	18	8.1
	Head nurse	7	3.2
Area of practice	Medical	70	31.7
	Surgical	108	48.9
	OBGY and PED	27	12.2
	Others	16	7.2

으며, 6점 만점의 평균평점은 3.63점으로, 대상자는 중등도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나타냈다. 각 영역별 평균평점을 보면, 진실추구 3.67점, 개방성 3.39점, 분석 3.83점, 체계성 3.33점, 비판적사고 자신감 3.69점, 호기심 많음 3.70점, 성숙 3.35점으로 나타나, 대상자는 중간보다 높은 정도를 보인 ‘분석’영역에서 가장 높은 비판적 사고성향을 나타냈으며, 중간보다 낮은 정도를 나타낸 ‘체계성’영역에서 가장 낮은 비판적 성향을 보였다.

대상자의 간호수행능력은 총 52문항을 4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총 208점 만점에 총 평균은 143.64점, 4점 만점에 평균 평점은 2.76점으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나타내 대상자는 자신의 간호수행능력을 중간수준으로 평가하였다. 각 영역별 평균평점을 보면 지도력 2.75점, 위기간호 2.67점, 교육/협력 2.66점, 계획/평가 2.74점, 대인관계/의사소통 2.88점, 전문적 발전 2.79점으로, 대상자의 간호수행능력 중에서 대인관계/의사소통에 관한 간호수행능력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협력에 관한 업무에서 간호수행능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직무만족도는 총 32문항의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총 160점 만점에 평균 91.29점,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2.88점으로 중간보다 낮은 직무만족도를 나타냈다. 각 영역별 평균평점을 보면, 전문적 위치 3.13점, 간호사-의사관계 2.91점, 행정 2.60점, 자율성 2.87점, 업무요구 2.63점, 상호작용 3.22점, 보수 2.51점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직무만족도 중에서

<Table 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e, and job satisfaction of the subjects (N=221)

Variables	Total mean (±SD)	Minimum	Maximum	Mean(±S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2.76	4.64	3.63(±0.28)
Truth-seeking		2.00	5.00	3.67(±0.43)
Open-mindedness		1.60	4.80	3.39(±0.48)
Analyticity	181.68	2.40	5.60	3.83(±0.47)
Systematicity	(±14.37)	2.00	4.57	3.33(±0.41)
Self-confidence		2.00	5.56	3.69(±0.50)
Inquisitiveness		2.50	4.70	3.70(±0.32)
Maturity		2.00	5.00	3.35(±0.51)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e		1.77	4.00	2.76(±0.24)
Leadership		1.80	4.00	2.75(±0.31)
Critical care		1.43	4.00	2.67(±0.37)
Teaching/collaboration	143.64	1.82	4.00	2.66(±0.30)
Planning/evaluation	(±12.83)	1.86	4.00	2.74(±0.29)
Interpersonal relations/communications		2.08	4.00	2.88(±0.25)
Professional development		1.20	4.00	2.79(±0.32)
Job satisfaction		1.94	3.81	2.88(±0.29)
Professional status		1.25	4.75	3.13(±0.59)
Nurse-doctor relationship		1.33	4.67	2.91(±0.57)
Administration	91.29	1.00	3.67	2.60(±0.49)
Autonomy	(± 9.53)	1.83	3.67	2.87(±0.32)
Task requirements		1.33	4.00	2.63(±0.47)
Interaction		2.29	4.00	3.22(±0.32)
Salary		1.00	4.00	2.51(±0.66)

상호작용에 관한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수에 관한 직무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수행능력 및 직무만족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수행능력 및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연령(F=2.74, p=.04), 결혼상태(t=-2.09, p=.02), 총 임상경력(F=3.86, p=.01), 근무부서(F=3.77,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23세 이하 연령인 경우와 미혼인 경우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았으며, 및 임상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와 근무부서가 산, 소아과인 경우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았다. 또한 Scheffe' test를 이용한 사후검정에서 임상경력이 1년 미만인 간호사가 5-10년 미만인 간호사보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았으며, 산, 소아과 병동간호사가 기타 병동간호사보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수행능력은 역할(t=2.55, p=.01), 연령(F= 3.66, p=.01), 총 임상경력(F=6.96, p<.01), 현직위(F=10.950, p<.01), 근무부서(F=3.33, p=.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프리셉터 역할을 수행하고 연령이 30세 이상인 간호사가 간호수행능력이 높았으며, 총 임상경력이 높고 주임간호사인 경우와 산, 소아과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간호수행능력이 높았다. 또한, Scheffe' test를 이용한 사후검정에서 30세 이상인 간호사가 23세 이하인 간호사보다, 총 임상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가 10년 미만인 간호사보다 간호수행능력이 높았다. 주임 간호사가 일반간호사보다, 산, 소아과 병동 간호사가 기타 병동간호사보다 간호수행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연령(F=8.86, p<.01), 결혼상태(t=-2.60, p=.01), 총 임상경력(F=13.80, p<.01), 근무부서(F=3.15, p=.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23세 이하인 경우와 미혼인 경우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 임상경력이 낮고 산, 소아과에 근무하는 경우에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한 결과에서

<Table 3>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e, and job satisfaction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21)

Variables	Categori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e			Job satisfact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Role	Preceptor	181.44(±13.59)	-.10	.91	148.58(±15.85)	2.55	.011	90.22(± 8.57)	-1.35	.17
	General nurse	181.72(±14.56)			142.68(±11.98)			92.57(± 9.68)		
Age(yr)	≤23a	187.16(±16.56)	2.74	.04	140.47(±16.29)	3.66	.013	98.45(± 8.28)	8.86	p<.01
	24-26b	181.33(±14.19)			142.14(±11.32)			91.81(± 9.79)		
	27-29c	179.75(±13.41)			143.34(±7.73)			90.32(± 9.58)		
	≥30d	179.80(±13.00)			148.19(±14.52)			89.69(± 8.10)		
Marital status	Married	178.53(±12.95)	-2.09	.03	146.23(±12.64)	1.92	.055	89.60(± 7.96)	-2.60	.01
	Unmarried	182.76(±14.76)			142.58(±12.80)			93.24(± 9.93)		
Religion	Protestant	182.56(±13.25)	.42	.73	142.71(±11.31)	1.03	.377	92.40(± 8.50)	.63	.59
	Roman catholic	182.76(±15.45)			146.84(±11.42)			93.96(±11.94)		
	Buddhist	178.78(±12.34)			146.47(±21.15)			93.31(± 7.78)		
	None	181.29(±15.35)			143.01(±12.22)			91.37(± 9.95)		
Education level	3 yr nursing college	181.87(±14.06)	.06	.97	143.14(±12.71)	.63	.590	93.44(± 9.24)	2.13	.09
	4 yr nursing college	181.51(±15.46)			144.09(±13.63)			90.58(±10.73)		
	In BSN	180.52(± 9.00)			143.36(± 8.39)			88.94(± 5.50)		
	In MSN	182.71(±23.35)			149.85(±18.25)			91.42(± 9.94)		
Career length (yr)	<1 ^a	188.02(±23.35)	3.86	.01	140.86(±17.20)	6.96	p<.01	100.67(± 8.86)	13.80	p<.01
	<1-5 ^b	180.95(±14.86)			141.91(±10.41)			90.42(± 9.18)		
	<5-10 ^c	178.01(±12.57)			143.44(±10.03)			90.33(± 7.89)		
	≥10 ^d	182.80(±13.49)			152.80(±14.67)			90.93(± 8.93)		
Current position	Staff nurse ^a	181.42(±14.38)	2.03	.13	142.26(±11.82)	10.950	p<.01	92.38(± 9.56)	.81	.44
	Charge nurse ^b	180.33(±13.08)			155.05(±17.64)			90.00(± 7.38)		
	Head nurse ^c	192.28(±15.28)			152.85(± 7.92)			95.14(±13.42)		
Department	Medical ^a	184.08(±14.95)	3.77	.01	145.84(±14.45)	3.336	.020	89.98(±10.06)	3.15	.02
	Surgical ^b	179.59(±13.90)			142.45(±11.86)			93.38(± 8.89)		
	OBGY and PED ^c	187.25(±11.99)			146.92(±12.47)			94.88(± 7.26)		
	Others ^d	175.87(±15.02)			136.50(± 8.77)			89.18(±12.52)		

* Scheffe' test

<Table 4> Correlations of study variables

(N=22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CTD)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e							Job satisfaction									
	Total	TS	OM	A	S	SC	I	M	Total	L	CA	TC	PE	IR/C	PD	Total	P	ND	AD	AT	TR	IA	SA	
CTD(total)	1																							
TS	.62**	1																						
OM	.52**	.31**	1																					
A	.60**	.13*	.06	1																				
S	.70**	.62**	.39**	.19**	1																			
SC	.79**	.26**	.17*	.65**	.38**	1																		
I	.74**	.27**	.39**	.40**	.39**	.60**	1																	
M	.53	.33**	.41**	.13*	.43**	.21**	.24**	1																
PNC(total)	.17**	-.05	-.03	.31**	.02	.24**	.17**	.12	1															
L	.15*	-.04	-.04	.28**	.02	.24**	.14*	.07	.82**	1														
C	.14*	-.05	-.70	.25**	.01	.23**	.13	.10	.71**	.53**	1													
T/C	.20*	.03	.08	.23**	.14*	.18**	.17*	.22**	.85**	.65**	.56**	1												
P/E	.07	-.09	-.04	.22**	-.02	.15**	.06	.10	.78**	.61**	.46**	.64**	1											
IR/C	.18**	.04	.02	.27**	-.00	.21**	.19**	.06	.83**	.68**	.45**	.61**	.59**	1										
PD	.06	-.14*	-.11	.25**	-.07	.16*	.11	.00	.81**	.63**	.45**	.57**	.54**	.63**	1									
JS(total)	.22**	.15*	.03	.16	.23**	.26**	.05	.15	.09	.07	-.05	.13*	.10	.15*	.01	1								
PS	.22**	.12	.00	.17*	.14*	.26**	.11	.15	.18**	.18**	.03	.17**	.13*	.21**	.15*	.66**	1							
ND	.17**	.08	.07	.08	.13*	.18**	.08	.22**	.16*	.16*	.16*	.17**	.15*	.18**	.07	.60**	.31**	1						
AD	.19**	.19*	.06	.07	.30**	.15*	.05	.20**	-.04	-.04	-.11	.10	.05	.06	-.07	.83**	.46**	.41**	1					
AT	.10	-.00	-.09	.19**	.11	.21**	-.02	.01	.07	.03	.02	.07	.12	.06	.05	.66**	.30**	.34**	.47**	1				
TR	-.07	-.05	-.08	-.00	-.00	-.01	-.10	-.08	-.12	-.13*	-.05	-.05	-.08	-.14*	-.12	.39**	.00	.21**	.22**	.28**	1			
IA	.03	.03	-.03	.08	-.02	.13*	-.03	-.08	.00	.04	-.11	-.02	.00	.09	-.00	.54**	.24**	.27**	.28**	.30**	.19**	1		
SA	.28**	.21**	.10**	.14*	.31**	.21**	.12	.23**	.05	.05	-.11	.12	.05	.13*	-.01	.66**	.43**	.25**	.63**	.30**	.14*	.09	1	

* p<.05 ** p<.01

CT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S: truth-seeking, OM: open-mindedness, A: analyticity, S: Systematicity, SC: self-confidence, I: Inquisitiveness, M: maturity

PNC: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e, L: leadership, C: critical care, T/C: teaching/collaboration, P/E: planning/evaluation,

IR/C: interpersonal relations/communications, PD: professional development

JS: job satisfaction, PS: professional status, ND: nurse-doctor relationship, AD: administration, AT: autonomy, TR: task requirements, IA: interaction, SA: salary

연령이 23세 이하인 간호사가 24세 이상인 간호사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 미혼인 경우 기혼인 간호사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총 임상경력은 1년 미만인 간호사가 1년 이상인 간호사보다 직무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수행능력 및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수행능력 및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간호수행능력의 계획/ 평가와 전문적 발전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관계($r=.17, p=.010$)를 나타냈다. 또한 비판적 사고성향은 직무만족도의 자율성, 업무요구, 상호작용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r=.226, p=.001$)를 나타냈다. 간호수행능력은 직무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직무만족도의 하부영역인 전문적 위치($r=.18, p=.006$), 간호사-의사관계($r=.163, p=.006$)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직무만족도는 비판적 사고성향($r=.22,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간호수행능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총 평균이 300점 만점에 181.68점, 평균평점은 6점 만점에 3.63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2007)의 연구에서 300점 만점에 평균이 198.99점, 6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3.96점으로 나온 결과보다는 낮지만 중등도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일치되는 결과이다. 영역별 점수를 보면 본 연구에서는 ‘분석’이 3.83점으로 가장 높고, ‘체계성’이 3.33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Kim(2007), Hwang(1998)의 연구에서 ‘호기심 많음’영역이 가장 높게 나온 결과와 Woo(2005)의 연구에서 ‘진실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Lim(2004)의 연구에서 간호사들의 비판적 사고성향 중에서 ‘분석’점수가 가장 높으면서 강한 정도를 보였다는 결과와는 일치하는 것이며, Profetto-McGrath(2005)의 연구에서 ‘성숙’과 ‘호기심 많음’영역이 가장 높은 반면 ‘비판적 사고자신감’과 ‘체계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비판적 사고성향 중에서 ‘분석’성향이 높게 나타난 것은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경계와 예측 가능한 결과를 예견하면서 이성적 판단과 증거 중심의 문제해결을 하려는 대상자들의 자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체계성’ 성향이 평균 이하로 낮게 나타난 것은 실무에서의 문제 접근에 있어서 조직적이고 순서 있게 접근하는 태도가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되어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예비교육 시 이에 대한 성향을 보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임상간호사에게 부족한 체계성 영역은 물론 이들의 전반적인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Kurfiss(Simpson & Courtney, 2002에 인용됨)가 제안한 대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문서작업이나 간단한 사례연구를 이용하고, 추론기술과 지식을 조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내포하는 질문과 복잡한 문제에 대해 대화하기 등의 전략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대상자의 간호수행능력은 총 평균이 208점 만점에 143.64점, 평균 평점은 4점 만점에 2.76점으로 나타나 Hwang(1998)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영역별 점수를 보면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의사소통이 2.88점, 전문적 발전이 2.79점, 지도력이 2.7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Hwang(1998)의 연구에서 전문적 발전이 2.89점, 대인관계/의사소통이 2.88점, 지도력이 2.8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Maynard(1996), Snyder(Hwang, 1998에 인용됨)의 연구에서 전문적 발전, 의사소통에서 간호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들이 간호수행의 여러 가지 행동 특성 중에서 대인관계/의사소통과 전문적 발전과 관련된 간호수행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간호수행능력이 임상에서의 능숙한 기술과 문제 해결능력을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간호업무 중에서 간호의 기술적 요소 외에도 대인관계/의사소통과 전문적 발전 영역의 간호수행을 많이 함으로써 간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직무만족도는 총 평균이 160점 만점에 92.19점,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2.88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Golbasi, Kellecia and Dogan(2008)의 연구에서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3.54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Kim(2007)의 연구에서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3.08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낮은 것이다. 영역별 점수에서는 상호작용이 3.22점, 전문적 위치가 3.1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보수가 2.5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Lee(2001)의 연구에서 업무요구, 상호작용, 전문적 위치의 순으로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 보수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결과와 Jun et al.(2003)의 연구에서 전문적 위치와 상호작용에서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 봉급에서 직무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구결과들에서 공통적으로 ‘전문적 위치’영역 부분에서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은 임상간호사들이 자신을 전문적인 간호사로서 인식하면서 간호수행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보수 면에서 공

통적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결과를 볼 때, 병원 당국과 간호 관리자들은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 적정수준의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연령, 결혼상태, 총 임상경력, 근무부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Kim(2007)의 연구에서 연령, 학력, 임상경력, 직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Lim(2004)의 연구에서 연령, 학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연령의 경우 나이가 적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최근 대학교육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면서 이를 학습한 간호사가 졸업 후 경과기간이 짧을수록 임상실무에서 비판적 사고를 잘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Kawashima and Petrini(2004)는 일본의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을 비교한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보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에 대한 선행학습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결혼 상태에서도 미혼인 간호사가 기혼인 간호사보다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미혼인 간호사는 대부분이 30세 이하의 연령 분포를 보여 임상경력이 적은 간호사가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았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총 임상경력의 경우 1년 미만인 간호사가 5-10년 미만인 간호사보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Woo(2005)의 연구에서 5년 미만인 간호사가 5-7년 미만의 간호사보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적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맥상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의 관리자와 교육계의 지도자들은 졸업한 지 오래된 간호사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함양시키기 위한 실무프로그램을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근무부서는 산, 소아과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기타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았는데, 이는 Kim(2007)과 Lim(2004)의 연구에서 근무부서에 따라 비판적 사고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근무부서의 범주화과정에서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본 연구에서는 근무부서를 내과계, 외과계, 산/소아과 및 기타로 구분한 반면, Kim(2007)의 연구에서는 내과계 병동, 외과계 병동, 중환자실로, Lim(2004)의 연구에서는 내과, 외과, 특수부서,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비판적 사고가 간호업무의 일상적인 부분이며, 간호사가 실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요인(Miller, 1992)임을 감안할 때,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특성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수행능력은 연령, 총 임상경력, 현 직위, 근무부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2006)의 연구에서 연령, 결혼상태, 총 임상경력, 직위에서 임상수행능력 점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와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Hwang(1998)의 연구에서 연령, 결혼상태, 학력, 임상경력, 간호전달체계에서 간호수행능력에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간호수행능력이 임상에서의 능숙한 기술과 문제해결능력을 나타낸다(Hwang, 1998)는 것을 볼 때, 간호사가 자신의 연령과 경력에 맞게 적절한 간호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간호수행능력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이들의 간호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수준별 교육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연령, 결혼상태, 총 임상경력, 근무부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Kim(2007)의 연구에서 연령, 결혼상태, 임상경력, 직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전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acel, Miller and Norris(2005)의 연구에서 근무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Kacel et al. (2005)의 연구결과에서 경력이 1년 이하인 간호사가 가장 높은 직무만족도를 나타냈으며, 본 연구에서도 연령이 낮고 미혼인 경우와 임상경력이 적은 경우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Adams and Bond(2000)는 경력이 많은 간호사는 자신과 후배 간호사를 위해 추가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관리자로서의 책임감 및 확대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역할갈등을 겪게 되어 빈번히 불 만족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수행능력 및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관계에서,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간호수행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또한 직무만족도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Hwang(1998)과 Profetto-McGrath(2005)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수행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와 Kim(2007)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직무만족도 간에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비판적 사고가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평가하는 정신과정(Hwang, 1998)임을 볼 때,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집단은 임상실무에서 대상자 문제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간호수행능력이 함양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비판

적 사고성향이 높은 간호사는 대상자 간호 시 어떤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에 대해 보다 만족스럽게 인지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비판적 사고성향은 간호수행능력의 하위영역 중 계획/평가, 전문적 발전 영역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수행능력이 임상에서의 능숙한 기술과 문제해결능력을 나타낸다(Hwang, 1998)는 것과 본 연구에서 연령이 30세 이상인 대상자가 23세 이하의 대상자보다 간호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대상자의 간호수행능력의 하위영역 중 계획과 평가영역 및 전문적 발전 영역은 이들의 비판적 사고성향보다는 연령이나 임상경력과 더욱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비판적 사고성향은 직무만족도의 하위영역 중 자율성, 업무요구, 상호작용영역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im(2007)의 연구 결과에서 보수, 업무요구, 행정영역에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비판적 사고와 상관관계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직무만족도 하위영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비판적 사고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에 대한 지식, 기술과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태도와 성향을 강화해 주어야 하는데(Park & Kwon, 2007), Canavan(Ko, 2002)에 인용됨은 간호사가 전문가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가 간호 실무에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에서부터 비판적 사고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중요시 여기고 임상수행능력을 증진시켜 간호전문직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Ko, 2002).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이들의 간호수행능력과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사가 임상 실무현장에서 문제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추론과정을 믿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계속적으로 지적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나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수행능력 및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08년 5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으며, 서울시에 소재한 I 대학병원의 외래 및 수술실

을 제외한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22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4.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6점 만점에 3.63점으로 중등도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나타냈으며, 영역별 점수에서는 ‘분석’이 3.8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체계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간호수행능력은 4점 만점에 2.76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였으며, 영역별 점수에서는 ‘대안관계/의사소통’에 관한 간호수행능력이 2.8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협력’에 관한 간호수행능력이 2.66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직무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8점으로 평균이하의 직무만족을 나타냈으며, 영역별 점수는 ‘상호작용’이 3.22점으로 가장 높은 직무만족을 나타냈으며, ‘보수’가 2.5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연령($F=2.74, p=.04$), 결혼상태($t=-2.09, p=.02$), 총 임상경력($F=3.86, p=.01$), 근무부서($F=3.77,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수행능력은 역할($t=2.55, p=.01$), 연령($F=3.66, p=.01$), 총 임상경력($F=6.96, p<.01$), 현 직위($F=10.95, p=.00$), 근무부서($F=3.33, p=.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연령($F=8.86, p<.01$), 결혼상태($t=-2.60, p=.01$), 총 임상경력($F=13.80, p<.01$), 근무부서($F=3.15, p=.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간호수행능력($r=.17, p=.010$)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또한 직무만족도($r=.22, p=.001$)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직무만족도는 비판적 사고성향($r=.22,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간호수행능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론을 통하여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수행능력은 평균 수준이었지만 직무만족도는 평균이하이므로 이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수행능력, 직무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변수를 이용한 대상자의 간호수행능력 향상은 물론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상자를 포함하여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수행능력 및 직무만족도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s

- Adams, A., & Bond, S. (2000). Hospital nurses' job satisfaction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2(3), 536-543.
- Brooks, K. L., & Shepherd, J. M. (1990).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decision-making skills in nursing and general critical thinking abilities of senior nursing students in four types of nursing programs.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9(9), 391-399.
- Choi, H. J. (2004). The effects of PBL(problem-based learning) on the metacognition,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proc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5), 712-721.
- Facione, P. A., Facione, N. C., & Giancarlo, C. F. (1996).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test manual(1st ed, Rev)*. California: California Academic Press.
- Golbasi, Z., Kelleci, M., & Dogan, S. (2008). Relationships between coping strategie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job satisfaction in a sample of hospital nurses: Cross-sectional questionnaire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In Press, Corrected Proff, Available online 13 August 2008.
- Hwang, J. W. (199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Jun, H. Y., Cho, Y. I., Ko, J. E., Kim, S. V., Park, C. B., & Hwang, J. Y. (2003). A study of the job satisfaction of public hospital nurses. *Bulletin of Dongnam Health College*, 21(2), 49-64.
- Kacel, B., Miller, M., & Norris, D. (2005). Measurement of nurse practitioner job satisfaction in a midwestern state. *Journal of the American of Nurse Practitioner*, 17(1), 27-32.
- Kawashima, A., & Petrini, M. A. (2004). Study of critical thinking skills in nursing students and nurses in Japan. *Nurse Education Today*, 24(4), 286-292.
- Kim, J. Y.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job satisfaction in clinical nurs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Kim, S. M. (2003). *A comparative study o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between preceptors and gener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 Ju.
- Kim, Y. O. (2006). *Perceive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RNs in the ICU*.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o, K. J. (2002).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 Lee, H. S. (2001). *A study of job stress and satisfaction of the clinical n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Lim, E. J.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ritical thinking skill in clinical n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Maynard, C. A. (1996). Relationship of critical thinking ability to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e.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5(1), 12-18.
- Miller, M. A. (1992). Outcomes evaluation: Measuring critical think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0, 417-424.
- Park, S. M., & Kwon, I. G. (2007). Factors influencing nurses' clinical decision making: Focusing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6), 963-871.
- Profetto-McGrath, J., Hesketh, K. L., Lang, S., & Estabrooks, C. A. (2003). A study of critical thinking and research utilization among nurses.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5(3), 322-327.
- Profetto-McGrath, J. (2005). Critical thinking and evidence-based practice.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1(6), 364-371.
- Schwirian, P. M. (1978).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nurse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Nursing Research*, 27(6), 347-351.
- Shin, K. R., Ha, J. Y., & Kim, K. H. (2005). A longitudinal study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critical thinking skill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2), 382-389.
- Simpson, E., & Courtney, M. (2002). Critical thinking in nursing education: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8(2), 89-98.
- Slavitt, D. B., Stamps, P. L., Piedmont, E. B., & Hasse, A. M. (1978). Nurses' satisfaction with their work situation. *Nursing Research*, 27(2), 114-120.
- Woo, H. S. (2005). *A comparative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preceptor nurses and gener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Yang, S. A., & Jung, D. Y. (2004).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bout student nur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6(1), 156-165.

Relationships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e and Job Satisfaction in Clinical Nurses

Sung, Mi-Hae¹⁾ · Eum, Ok Bong²⁾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2) Director, Department of Nursing, Sanggye Paik Hospital

Purpose: This study was undertake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e and job satisfaction in clinical nurses. **Method:** A convenience sample of 221 registered nurses were obtained from one hospital in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SPSS WIN 14.0 program. **Results:** There wer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ccording to age, marital status, career length, and department. There wer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e according to role, age, career length, current position, and department. There wer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age, marital status, career length, and department.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e, and job satisfaction was found. **Conclus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e and job satisfaction of clinical nurse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improve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e and job satisfaction of clinical nurses, it need to use actively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ith resonable salary. And it need to prepare the nursing education and strategy to increase the job satisfaction of clinical nurses.

Key words : Thinking, Professional competence, Job satisfactio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ung, Mi-Hae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633-165, Gaegeum-dong Busanjin-gu, Busan 614-735, Korea

Tel: 82-51-890-6825 Fax: 82-51-896-9840 E-mail: nursmh@inje.ac.kr